

인 김연지(金連枝)가 평안감사로 있을 때 문집인 「독곡선생집」을 발간하였으며 서문은 서거정(徐居正)이 짓고 발문은 조근(趙瑾)이 썼다. 1994년 10월 1일에 신도비를 세웠는데 이병도(李丙憲)가 비문을 짓고 정주상(鄭周相)이 글씨를 썼다. 같은 해에 독곡촌에 유희비를 후손 도용(道鎔)이 세우고 글씨는 대용(大鏞)이 썼다. 1995년 2월에 서울 종로구에 독곡로(獨谷路)라는 가로명이 지정되었고, 1997년 3월에 물계서원에 배향되었다. 배위는 화숙택주 손흥안씨(順興安氏)로 정당문학을 지낸 문혜공 안원승의 따님이시고 문숙공 안모의 손녀이며 우리나라에 주자학을 들여온 문성공 안항(安珦)의 증손녀가 되신다. 1400년(정종2년 庚辰)에 돌아가시니 공과 함께 합장으로 모셨다. 아들이 둘인데 만이가 검교호조참의 지

**子發道** 발도  
관직은 1401년(태종1)에 지사간을 시작으로 증군동지총·전라도병마도절도사·국장도감·좌군도총제·경성병마절도사도총제·형조판서·판한성부사·공조판서·의정부참찬·찬성을 지내셨다. 1418년(태종18년 戊戌) 1월 3일에 별세하시니 임금께서 조회를 열지 아니하고 쌀 30석과 종이 100권과 제문을 내렸으며 시호를 경숙(景肅)이라 하였다. 묘는 문경공 원편에 있고 석의(石儀)를 갖추었다.  
배위는 정부인 밀양박씨(密陽朴氏)로 아들은 없고 딸 넷을 두었으며 참찬을 지낸 창선(藏先)의 따님이다. 묘는 합창이다.

**婿金連枝** 김연지  
원주김씨(原州金氏)로 평안감사를 지냈으며 《독곡선생문》을 발간했다.  
原州人  
平安監司  
獨谷文集乾坤刊行

**婿金守智** 김수지  
상주김씨(尙州金氏)로 감찰을 지냈으며 아버지는 기(淇)이다.  
尙州人  
監察  
父淇

**婿宋石童** 송석동  
**婿韓永堅** 한영건

**子繼源** 계원  
**婿田九卜** 전구복  
**婿申處讓** 신처양

Blank space for 10th generation.

Blank space for 11th generation.

